

광주세계수영대회 증액 예산 국비 259억 '그림의 떡' 될라

“운영비 추가 요청 않겠다”
과거 협약서 체결이 ‘발목’
광주시·문화전당에 배정
시가 조직위 대신 직접 진행
‘사용 후 정산’ 정부와 협의

광주시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국비 예산 259억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예산 집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작 필요한 예산은 수영대회 운영비이지만 259억원 전액이 수영대회조직위가 아닌,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에 배분돼 조직위가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광주시가 과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국비를 증액하지 않고 늘어나는 예산은 광주시가

부담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해 사실상 추가 지원 국비의 원활한 사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20일 “이 같은 문제가 제기돼 수영대회 추가 국비 예산 259억원의 사용 방법을 놓고, 정부와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엔 추가 반영된 국비 259억원은 국제체육교류지원 120억원, 국제대회 안전시스템 구축 110억, 수영대회 문화행사 29억원 등 세 종류로 배정됐다. 특히 국제체육교류지원과 국제대회 안전시스템은 광주시에 예산이 배정됐고, 수영대회 문화행사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수영대회 개최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예산은 조직위 운영비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엔 추가 배정된 259억원을 수영대회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직위에 직접 지원하면 정부와의 협약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우회 지원을

받은 셈이다.

광주시는 앞서 기재부·문체부와 “사업규모나 내용변경 등으로 시설비,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국비 지원은 증액하지 않고 모두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협약을 근거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국비 지원 과정에서도 광주시가 요청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486억원 중 정부 애초 예산안에는 191억원만 반영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259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문체부를 찾아 259억원의 사용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조직위 대신 대회 운영 관련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춥거나 습막히거나 ... '삼한사미'

(미세먼지)



20일 낮 12시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m당 112µg까지 치솟는 등 극성을 불리면서 광주시청 광장에 설치된 스케이트장이 운영을 멈췄다.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mm미만 미세입자 먼지로, m당 35~75µg의 농도일 경우 나뭇, 76µg 이상일 경우 매우나쁨 수준으로 분류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말까지 극성 ... 휴일부터 다시 추위

극성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주말인 22일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공기 질이 탁한 날씨가 전망된다. 21일과 23일 광주·전남 일부지역에 비가 예보됐지만, 강수량이 적고 대기흐름마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

서다. 환경부는 21일도 광주·전남은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광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큰 미세먼지(지름 10µm 이하) 농도는 보통수준(m당 30~80µg)으로 예상되나, 초

미세먼지(지름 2.5µm 이하) 농도는 나쁨 수준(m당 35~75µg)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보통 수준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휴일인 23일 비가 그친 뒤 낮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는 등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해안철도 전철화 첫걸음 ... 정부, 예타 대신 적정성 재검토

목포~보성 간 연장 82.5km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이 첫발을 뗀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결론내면서 사업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구간 연장 82.5km 구간 전철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

토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이 구간의 전철화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선 일반철로 공사 중인 이 구간이 일반철에서 전철화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성조사(B/C) 등을 다시 해야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전철화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따지게 돼 전철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정도 공사가 멈춰야 하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게 되면 공사 중단은 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도 빠르면 3개월 내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 같은 결정은 모든 철로가 전철화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

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사 중인 남해안철도는 총 사업비 1조379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5년 착공, 2020년 완공 목표이며, 올 연말까지 공정을 53%로 예상된다.

전철화가 최종 결정되면 150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는 1조5301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연내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전철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내년 4월 전자선 및 송변전 등 전철화 실시실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 후 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공대 부지 선정 기준 '재정지원' 포함 유·무상 양도 또는 대부 여부가 중요 잣대

지자체 재정부담 반발 클 듯

한전공대 부지선정 기준에 부지 양도 및 대부 등 땅 제공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상 부지 조성과정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 잣대가 될 수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전력과 광주·전남도의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남 한전 측이 제시한 용역 내 기준위원회의 부지선정 기준안에는 부지조성 비용과 부지제공 조건(유·무상 양도 또는 대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안의 내용과 각 배점은 '보안각서'를 쓰면서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요 선정 요건으로 교육, 주거, 의료, 상업, 문화 기타 편의시설 인프라와 공항, 철도, 대중교통 인접 도로 등 SOC 항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경제성과 지자체의 지원 항목으로는 부지의 양도 또는 대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사전 주민 동의 방안 등도 주요 항목이다.

한전공대 용역 중간보고서 제언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토지매입 등 인프라 조성을 전담하고,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시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도 일맥상통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지역 간 부지선정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한전 측에 “공유지가 많은 전남도 후보지와 비교해 광주시가 불리한 항목이다”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최종 기준안에는 재정지원 항목이 변함없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유지가 포함된 부지를 후보 부지로 추천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선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된다.

한편 한전과 광주·전남도는 각 3곳의 후보 부지를 추천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경험없다고 아무데서나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꼭** 비교해 주세요.
비교할수록, 품격은 올라가고 장례비는 절감됩니다.
품격은 최고, 가격은 최저
그린장례식장의 자랑입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문충동 876-17)



400년 수령 소나무 향기 그윽한 곳,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www.그린장례식장.com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